

영화 보고 강좌 듣고...페미니즘 이야기 나눠요

광주여성영화제 '영화 인문학산책 2'
28일~9월 12일...변재란·이화경 작가 등 강의
시민자유대학 25일부터 '페미니즘 캠프'
디지털시대 페미니즘 나아가갈 방향 등 제시

광주지역에서 '페미니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여성영화제는 지난해에 이어 영화를 보고 성평등 사회를 위한 대안을 찾는 '페미니즘 영화 인문학산책2'를 연다. 인문학 산책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 동구 광주독립영화관 GIFT에서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강좌를 통해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여성영화를 함께 보고 전문가들의 강좌도 들을 수 있다.

28일에는 단편영화 '아가씨', '102호가는 길', '소장님의 결혼' 등을 연출한 이숙경·김혜정 감독이 '여성, 영화, 새로운 협업의 방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페미니즘 영화 인문학산책2'를 연다. 김혜정 감독이 연출한 단편 '소장님의 결혼'은 이혼 상담을 하는 가족상담소장 오솔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다.

30일에는 스위스 영화 '할머니와 란제리'를 보고 변재란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교수가 '여성의 노년'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변재란 교수는 다음 달 6일 아내스 바르다 감독의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를 가지고 강연장을 다시 찾는다.

9월4일·11일에는 각각 시인 실비아 플라스의 삶을 그린 영화 '실비아'와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치열한 삶을 담은 영화 '한나 아렌트'를 상영한 뒤 소설가 이화경씨의 강의가 펼쳐진다. 마지막 강좌가 열리는 같은 달 12일에는 한채운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과 단편영화 '있는 존재', '첫 외출'을 본다.



변재란 교수



영화 '한나 아렌트'

첫날 강좌는 이현재 서울시립대 인문학국(HK) 교수가 진행한다. '여성혐오'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러링'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 페미니즘을 조명하고 페미니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한우리(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이 진행하는 둘째 날 강좌는 미국에서 일어난 제2물결 페미니즘을 통해 페미니즘 정치학에 대해 알아본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홈페이지(cafe.daum.net/volkshochschule)와 전화(062-961-111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처음 그림을 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본 미술품 가운데 최고예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케이블 TV의 '꽃보다 할배 리턴즈-오스트리아 빈 여행편'에서 탤런트 이서진이 할배들에게 건넨 대화의 한 대목이다. 몇 년 전 구스타프 클림트의 명작 '키스'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이서진이 친구와 이순재에게 작품감상을 '강추'한 것이었다.

두 할배는 작품이 전시된 벨베타데레 공전을 찾아 아름다운 정원과 미술품에 감탄을 터뜨렸다. 특히 클림트의 '키스'와 '유디트' 앞에서 눈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감동의 여운이 깊었

흐름에서 비껴나 있는 듯하다. 물론 무조건 유명작가의 작품을 소장하는 것만이 좋은 컬렉션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해 평균 5억~7억 원에 불과한 시립미술관의 예산으로 1점당 수십,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명작을 구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시립미술관만의 뚜렷한 방향 없이 작가들의 창작 지원 등을 명목으로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매년 광주아트페어에서 1억~2억 원씩 일부 작품을 사들이는 게 대표적인 예다. 광주시 주최로 열리는 아트페어의 부진한 판매실적을 미술관 구매로 '메꾸려'는 도에서다. 이와함께 학연·지연 출신의 인맥으로 얽힌 구입 관행도 빼놓을 수

시립미술관 혁신은 컬렉션부터

던 걸까. 전시장을 빠져 나온 친구는 아트숍에서 '키스' 그림이 담긴 액자 2점을 구입하며 흐뭇해 했다. 나 역시 TV를 시청하는 동안 지난해 벨베타데레에서의 추억이 새록 떠올라 즐거웠다.

예술의 도시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빈은 볼거리가 많은 도시다. 그중에서 빈 남동쪽에 위치한 바로크 양식의 벨베타데레 공전은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다. 특히 클림트의 '키스'는 죽기전에 감상해야 할 최고의 걸작이다. 여기에 에곤 실레의 '죽음과 소녀' 등 다수의 진귀한 작품을 소장한 덕분에 벨베타데레는 매년 수백 만명의 방문객이 찾는다.

이처럼 미술관의 독보적인 컬렉션은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근래 국공립미술관이 국내외 거장들의 화제작과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앞다퉈 구입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광주시립미술관의 컬렉션은 이런 시대적

없다. 역대 시립미술관장의 상당수가 지역 출신의 화가인데다 차별화된 컬렉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미술관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작품을 모으는데 소홀했다.

최근 광주시가 차기 광주시립미술관 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면서 신임 관장의 '조건'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대다수 지역미술인들은 후보 1순위로 '전문성과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꼽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뛰어난 전시 기획과 경영 능력은 미술관 수장의 중요 덕목이다. 하지만 화려한 로드맵 못지 않게 미술관의 '본령'인 컬렉션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후보의 마인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핵심 요건이다. 컬렉션은 미술관의 경쟁력이자 도시의 문화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립미술관 혁신의 첫 단추는 잘못된 소장품 '관행'부터 바로잡는 것이리라.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문화신포니에타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내일 일곡동 남도향토박물관

'문화신포니에타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이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북구 일곡동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문화신포니에타 앙상블이 레하르의 '금과 은 왈츠'로 서문을 연다. 합창단은 우리 가곡 '고향의 노래', '섬집 아기' 등을 선보인다. 소프라노 윤한나가 '동심초', 테너 김백호가 '벚노래'를 부른다. 정병열 문화

신포니에타 단장의 해설과 함께 요한 스트라우스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강', 모차르트 '디베티멘토', 쇼스타코비치 '재즈 모음곡 2번' 등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다.

성악·기악 예술인들이 지난 2004년 창단한 문화신포니에타는 모닝콘서트와 심야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석 무료. 010-3645-114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은화수 국립나주박물관장 취임

국립나주박물관 제2대 관장에 은화수(53·사진) 관장이 지난 20일 취임했다. 신임 관장은 영광 출신으로 호남대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북대 사학과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등을 거쳐 이번에 국립나주박물관장에 임명됐다.

은 관장은 광주 신창동 유적, 여수 송도 패총, 영암 만수리 4호분·신원리 9호분, 함평 신덕 고분 발굴 조사에 참여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해남 장고봉 고분·용일리 용운 고분·유두리 고분, 화순 대곡리 유적 등 광주·전남 지역의 고고학 발굴 조사에도



참여하는 등이 분야 전문가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영산강 유역 고고 자료 보존 및 전시, 발굴매장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건립됐다.

은 관장은 "앞으로 전남 서부지역의 매장문화재 관리와 활용, 다채로운 전시를 개최하는 등 차별화된 체험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학술연구 기능도 강화해 관람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인문학강좌 '심미안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미학적 가치를 탐색하는 인문학강좌가 열린다. 전남대 평생교육원이 신학기를 맞아 심층 인문학강좌 '심미안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세상을 들여다 보는 렌즈'를 부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문학, 음악, 미술 분야별로 예술작품들이 지닌 미학적·문화론적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이다.

오는 24일까지 수강생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팩스를 통해서도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12만원.



강좌는 오는 9월 3일부터 12월 17일 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전남대 창조관(옛 언어교육원) 100강당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앙대 진중권(사진) 교수를 비롯해, 전예안 서울대 교수, 최승연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미술칼럼니스트 이소영씨 등의 초청 특강도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도시 오픈스쿨' 내일 문화전당서 열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이 함께하는 전문강좌 '4회 문화도시 오픈스쿨'이 오는 23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문·전·성·시(문화 전문가로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부제를 지닌 이번 강좌는 문화예술 종사자나 청년문화기획자,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강신

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부원장이 진행하는 강좌에는 김은영 광주비엔날레 정책 기획실장과 유우상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의 발표가 이어진다. 이들은 각각 '비엔날레 마케팅'과 '광주폴리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메일(hercyna_3@naver.com)을 통한 사전 신청,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010-5373-187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